

# 순천, K-웰니스 ‘브랜드 대상’

‘생태수도’ 비전 기반 도시 조성

자연숲캠핑 발전 가능성 호평

시상식 부스 운영·박람회 홍보

순천시가 27일 한국웰니스산업협회로부터 ‘2022 K-웰니스 브랜드대상’을 수상했다.

순천시는 지난 2월 전남 제1호 K-웰니스 도시로 선정된데 이어, 이번 K-웰니스 브랜드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힐링 명소임을 입증했다.

순천시는 생태를 기반으로 도시를 가꿔왔으며, 2013년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23년 두 번째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도심 곳곳에서 정원 속 여유와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순천시가 27일 ‘2022 K-웰니스 브랜드대상’을 수상했다.

/순천시 제공

특히 민선8기 도시 비전을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으로 정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장 조성 등의 사업이 자연숲캠핑분야의

미래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상식은 서울aT센터에서 열리는 ‘K-웰니

스 푸드&투어리즘 페어’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행사에서 순천시 부스를 운영하면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함께 홍보했다.

김미자 한국웰니스산업협회장은 “순천시가 K-웰니스 브랜드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함께 웰니스 도시로서 순천시가 국내외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관광의 패러다임이 웰빙, 행복, 건강을 추구하는 웰니스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이라는 비전과 함께 웰니스 도시라는 브랜드를 더해 시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는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바이어·쇼호스트·기자단·유튜버 등 500여 명의 현장참여단과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전시·홍보전이다.

/순천=박경식 기자

## 곡성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내달 1일부터 6대 도입 운행

곡성군이 내달 1일부터 교통 약자의 이동 수단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바우처 택시 6대를 운행한다.

현재 곡성군은 교통 약자 이동 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 4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교통 약자가 증가하며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용자의 불편이 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했다.

바우처 택시는 곡성군 내에서만 운행되며,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휠체어 교통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소에는 일반 택시로서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

바우처 택시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콜 센터(1899-1110) 또는 모바일 앱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배차를 신청한 뒤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이용 요금은 2km 기본 요금 500원에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500원까지 부과돼 최대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는 1인 기준 하루 최대 4회, 월 30회까지 가능하다.

단 일반 택시 요금 기준으로 1회 3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은 별도로 자부담해야 한다.

/곡성=한정길 기자

##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대회’ 내년 4월 개최지 여수 확정

여수시가 ‘2023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2002년 코리아 오픈대회 이후 21년 만에 여수에서 열리는 메이저급 배드민턴 국제대회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개최 희망도시에 대한 현장평가와 서류심사를 거쳐 이사회를 열고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회는 내년 4월중 전남실내체육관 등 진남경기장 일원에서 6일간 열린다. 전 세계 30개국 500여 명의 최정상급 선수와 운영요원 300명 등 총 8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 배드민턴연맹(BWF)을 통해 국내외 해외 20개국에 중계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국제대회 유치로 2만여 명의 선수와 관람객이 여수를 찾을 예정이다”며 “세계 최정상급 선수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의 국제적인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 고흥, 법정 문화예비도시 지정 ‘젠걸음’

‘문화모뎀’ 라운드 테이블 추진

고흥군이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제5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비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다양한 마중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지역을 위해서 잘 모이고, 힘을 보태는 군민들이 직접 나서서 ‘문화모뎀’이라는 이름으로 라

운드 테이블을 최근 3일간 개최했다.

‘모뎀’은 ‘모이다’라는 뜻의 전라도 방언인 ‘모데다’의 명사형으로 고흥의 자원, 마음을 모아 다양한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문화모뎀은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정 전반에 다양한 주체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

을 직접 실행하는 리빙랩 사업 등을 통해 고흥의 문화도시 비전과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3개 권역(고흥읍, 도양읍, 과역면)을 순회하며 문화도시 조성 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1차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 예술인, 관광해설사, 귀

농·귀어·귀촌인 등 주민 약 60여 명이 참여해 지역 문화예술환경, 문화 다양성, 생태 등 다양한 이슈를 바탕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관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문화도시의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지정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며 “주민의 삶 속에 문화가 확산되고 문화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고흥을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흥=진종연 기자

## 순천대,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성과발표회

순천대가 최근 70주년기념관 우석홀에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한국문화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순천대는 매년 한국어 연수과정 및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노래, 춤, 연극, 개그 등을 선보이는 유학생 잔치 한마당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는 총 120여 명의 한국어학당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참여해 K-pop 댄스와 K-드라마 패러디, 유학생 자국의 전통문화 등 다양한 장기를 선보였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한국어 연수과정 5B반이 토론·콩트·노래·춤을 하나의 스토리

로 엮어 최우수상을 받았고, K-드라마 ‘사내맞선’ 패러디가 우수상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전통춤을 보여준 팀이 특별상의 영광을 안았다.

유학 체험기 발표 대회에서는 놀라운 글과 말 솜씨를 보여준 난다윗아웅(미얀마) 학생이 우수상을 받았다.

축하 인사를 통해 고영진 총장은 “순천대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며, 이곳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 속에서 순천대를 대표하는 멋진 구성원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연 국제교류교육본부장은 “오늘 성과발



순천대가 최근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한국문화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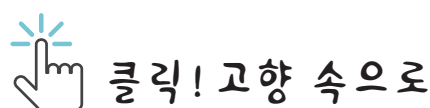
/순천대 제공

표회를 통해 놀랍도록 성장한 기량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동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신입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순천대 국제교류교육본부(본부장 천지연)는

▲국제교류의 날 ▲유학생 상담 ▲버디프로그램 ▲슬기로운 방학생활 등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및 생활 적응, 학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수한 해외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주연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 광양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쿠킹 클래스 성료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최근 꼬마 농부의 텃밭 놀이터 2단계 과정인 ‘쿠킹 클래스’를 어린이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단호박을 직접 만져보고 관찰한 후 ‘단호박 모닝빵 샌드위치’를 완성했다.

요리교실에 참여한 한 교사는 “아이들이 낯설어하던 호박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며 “직접 심고 키우고 호박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오승택 식품위생과장은 “쿠킹 클래스 시간이 아이들의 오감과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편식을 개선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동현 기자



## 보성청소년문화의집, 워터쇼 마무리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이 최근 개최한 ‘워터쇼’에 청소년과 지역주민 400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워터쇼는 보성군 최대 규모의 유스 풀이 설치되고 야외 수영장과 에어슬라이드, 청소년동아리 부스 등 다양한 놀거리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오후에는 보성군청소년동아리가

주도해 체험 및 먹거리 부스를 운영했다. 물총 사격, 물풍선 농구, 인형 낚시 등의 다채로운 활동과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캠페인도 진행했다.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최창호 관장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



## 여수 심의섭 대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여수시가 최근 대성패자장 심의섭 대표가 여수에서 18번째, 전남에서 133번째 아너 소사이어티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증패 전달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동일 회장, 전남동부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함께해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심의섭 대표는 “사업을 통한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지역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나눔과 기부의 확산으로 지금보다 더 사람냄새 짙은 여수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대표가 기부한 성금은 여수시의 돌봄이웃 복지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여수=곽재영 기자